광주·전남 제조업 경기 갈수록 어렵다

BSI 72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져…10개월 연속 하락

광주·전남 제조업체의 체감경기가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광주·전남지역 48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기업경기 조사'를 한 결과, 제조업의 1월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2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2월 업황전망BSI도 75로 기준치에 한참 못 미쳤지만 전달보다는 1포인트 상승했다.

업황BSI는 지난 4월 99을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 떨어져 지역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황BSI는 기준치 100보다 클수록 장래 상황이 좋다는 것이고, 100보다 작을수록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월 내수판매, 생산, 가동률 BSI는 각각 전달보다 8포인트, 8포인트, 10포인트 하락했고, 같은 항목의 2월 전망BSI는 각각 6포인트, 2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1월 업황BSI는 79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2월 업황전망BSI는 4포인트 올랐다.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상승(2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수부진(19.3%), 불확실한 경제상황(13.3%), 자금부족(7.1%),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5.9%), 수출부진(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지역 제조업체의 업황전망은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중소제조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다음달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83.0로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92.6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며, 최근 1년새 최저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실물경제 위기 확산, 가계부채 증가, 내수부진 등 경기 불안 요인에 따른 국내외 수요 감소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61.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45.7%), 인건비 상승(36.2%), 판매대금 회수 지연(26.7%), 업체간 과당경쟁(27.6%)를 들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식당, 지난해 5만개 사라져

경기침체·대기업 진출…폐업 매년 증가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을 닫는 영세 식당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음식점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증가와 맞물려 서민 창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매년 비슷한 숫자의 점포가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전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폐업 식당의 수는 2009년 2만9000여곳에서 2010년 4만7000여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2만6615개가 점포를 접었으며 연간으로는 5만개 이상의 식당이 사라졌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창업점포 역시 2만9000여개(2009년), 5만6000여개(2010년), 2만8000여개(2011년 상반기)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폐업 수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음식점의 수는 59만개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휴업을 하는 식당의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09년 14만9000여개였던 휴업 식당의 수는 2010년 25만1000여개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12만7172개를 기록했다.

특히 휴·폐업 업체 중 86.2%가 전월세로 영업하고 있고 75.1%가 99㎡ 이하 면적의 업소에서 영업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중앙회 측은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연이은 외식산업 진출도 영세업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삼성·LG 등 재벌가 외에도 삼천리와 귀뚜라미 등 많은 대기업·중견기업이 외식업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천리는 계열사 에스엘엔씨(SL&C)를 통해 중식업 브랜드 '차이797'을 설립했으며 귀뚜라미그룹은 외식업체 닥터로빈을, 대성은 한식전문 계열사 '디큐브한식저잣거리'를 런칭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측에서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계열사와 경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SSM도 봉투 판매 중단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800여개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장이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와 유통업계가 지난해 10월 맺은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협약에 따른 것이다.

SSM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제작·보급, 재사용 종량제 봉투 및 종이봉투 판매 확대, 자율포장 빈박스 제공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대형마트는 지난해 10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팔지 않게 됨에 따라 연간 6600만장의 비닐봉투 발생을 줄여 33억원을 아끼고 이산화탄소 2831t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피부관리도 '웰빙' 최근 먹거리 뿐 아니라 화장품에도 무방부제 또는 천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고광후) 8층 로얄네이처 매장에서 한 여성고객이 직원에게 천연 화장품테스트를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서 만드는 삼성 미니냉장고

삼성전자는 30일 차별화된 디자인과 활용성을 높인 1도어 미니 냉장고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삼성 1도어 미니 냉장고는 민트 블루(197ℓ), 오하라 레드(177ℓ)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정에서는 보조 냉장고로, 싱글족이나 카페·소형 오피스에서는 실속형 냉장고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손잡이를 위와 옆에 설치해 키 높이에 맞게 누구나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고, 내부에는 다용도 서랍과 넓은 도어 수납칸을 둬 다양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다. 제품 출고가는 47만~50만원 선이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산단공 이사장 김경수씨

김경수(54·사진) 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제8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와 부산대 경제학과,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정책학 석사·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5회로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장·홍보관리관,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 등을 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벤트 참여하면 장학금 드려요"

광주은행 'DREAM & U-Free통장'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오는 4월2일까지 올 1학기 대학교 등록금 납부 고객및 U-Free 통장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KJB 장학금 DREAM & U-Free통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와 은행창구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모든 고객과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광주은행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한 고객도 대상이 된다.

이벤트 참가방법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에 '이벤트 참여하기'를 통해 응모하면 되고, 1등 1명 300만원, 2등 3명 100만원, 3등 10명에 5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한다. 행운상 당첨자 200명에게는 도서상품권과 여수엑스포입장권이 제공된다. 또한 광주은행 대학생 전용통장인 KJB U-Free 통장 가입고객 중 이벤트 기간내 광주은행 체크카드(학생증카드 포함)를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U-Free 통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당첨자 결과는 4월 중순,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道-금감원 지역민 금융교육 협약

전남도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감독원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 민원상담, 서민금융지원 상담 등의 정기 행사를 분기당 1회 이상 진행하게 된다.

특히 서민금융지원 상담은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중앙재단 등 10여 개 서민금융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은 또 도내 22개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문강사를 수시로 파견, 금융거래시 주의사항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법, 생활주기별 재무설계 등 교육 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실생활 금융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금융 투어버스'를 운영, 도내 소도시와 시골 외지를 찾아다니며 금융민원, 서민금융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마을회관, 상조회 사무실 등에서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준영(왼쪽에서 네번째) 전남도지사와 권혁세(〃 세번째)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전라남도-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